

조선 장렬왕후의 경련에 대한 치병기록 연구 - 『승정원일기』의 의안을 중심으로 -

박주영, 차웅석,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 Historical Study on Treatment Records of Queen Jangyeol's Convulsion - Focusing on Cases Recorded in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承政院日記 (Seungeongwonilgi)』" -

Joo-Young Park, Wung-Seok Cha, Namil Kim

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Queen Jangyeol was proclaimed as the second wife of King Injo at the age of 15 in 1638.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confirm if Queen Jangyeol actually came down with epilepsy or if she pretended to do. The keywords, "Jungjeon" and "Jungjungjeon" were searched among the articles from "Seungeongwonilgi" in the 16th reign to the 27th reign of King Injo. After that, articles only related to convulsion were selected. The symptom of convulsion and the therapy were analyzed. King Injo gave an order, and royal doctors diagnosed the queen's illness as epilepsy in August in the 23th reign. The Queen was confined in Gyeongdeok in November, and took herbal drugs for treating the epilepsy. After the death of King Injo, she stopped taking the drugs. As the Queen's epilepsy took place consistently more than 1~2 times in a month, it is the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Also, it is the epilepsy overlapping reiteration with the brain function disorder because the convulsion lasted throughout 1 hour. However, after King Injo died, she lived for long without the brain function disorder. So it is difficult to judge she actually came down with the epilepsy.

Key words : Queen Jangyeol, Epilepsy, Convulsion, Seungeongwonilgi, Royal Medicine

I. 서론

의학사는 의학의 내재적 발전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의학회적 요소들이 의학에 미친 영향까지 연구하는 분야이므로 의학회적 요소들에 대한 정밀한 연구는 의학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설

득력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¹⁾.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조씨는 인조 대 왕비로서 11년, 효종 대 왕대비로서 15년, 현종과 숙종 대 대왕대비로서 24년, 총 4대에 걸쳐 50년을 궁궐에서 보냈다.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하자 자의대비가 되었다. 효종과 그 비 인선왕후 장씨가 죽자 그에 대한 복상 문제로 1차, 2차 예송 논쟁이 벌어지고 대왕대비 조씨는 서인과 남인 간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조선 임금과 세자의 질병에 대해 분석한 논문으로는 강도현²⁾, 김선형³⁾⁴⁾, 신명호⁵⁾, 이상원⁶⁾, 김혁규⁷⁾⁸⁾, 김동윤⁹⁾¹⁰⁾¹¹⁾,

접수 ▶ 2016년 05월 16일 수정 ▶ 2016년 05월 30일 채택 ▶ 2016년 05월 30일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1-0672 Fax : 02-965-5969, E-mail : southkim@khu.ac.kr

- 1)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영진, 김홍균, 김훈, 등. 『한의학통사』. 서울:대성의학사. 2006:1-573.
- 2) 강도현. 「『승정원일기』의 의안을 통해 살펴본 효종의 질병과 사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 3) 김선형, 김달래. 「정조의 사망원인에 대한 연구 :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9;30(4):142-161.
- 4) 김선형, 김달래. 「영조의 질병력과 사망원인 :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의과학. 2010;19(2):299-341.
- 5) 신명호. 「『승정원일기』를 통해본 소현세자의 질병과 사인」.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2010;100:109-137.
- 6) 이상원. 「조선 현종의 치병기록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 예송논쟁이 현종 질병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7) 김혁규, 김남일, 강도현, 차웅석. 「조선 인조의 질병기록에 대한 고찰 : 『승정원일기』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회지. 2012;25(1):23-41.
- 8) 김혁규. 「조선 인조의 치병기록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3.
- 9) 김동윤, 김남일, 차웅석. 「『승정원일기』 의안을 통해 살펴본 경종의 기질에 대한 이해」. 한국사학회지. 2013;26(1):41-53.

고대원¹²⁾13) 등이 있다. 왕후의 질병에 대해 분석한 논문으로는 방성혜¹⁴⁾15), 김동율¹⁶⁾, 곽영룡¹⁷⁾ 등이 있다. 장렬왕후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로는 김인숙의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별궁 유폐고」¹⁸⁾ 단 1건이다. 이 논문은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왕비 시절 장렬왕후의 궁중에서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파헤치고 있으며, 인조 23년 장렬왕후가 별궁으로 유폐된 후 인조가 죽을 때까지 정궁으로 돌아오지 못한 원인과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장렬왕후는 간질이라는 병을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별궁인 경덕궁에 유폐되었다. 『승정원일기』에는 왕비 시기였던 인조 16년(1638)부터 인조 27년(1649)까지 장렬왕후가 앓았던 경련의 증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어의들은 이를 간질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인조가 승하한 이후에는 경련이나 간질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과연 장렬왕후가 실제로 간질을 앓았던 것인지 아님 별궁에 유폐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승정원일기』 원문 기사에서 인조 16년부터 인조 27년까지 “중전(中殿)”과 “중궁전(中宮殿)” 2개의 검색어로 검색하였고, 그 중 “경련”과 관련이 있는 기사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원문을 해석하여 허준 『동의보감』, 이천 『의학입문』, 공정현 『만병회춘』 등 여러 의서를 토대로 질병의 치료, 경과 및 예후를 분석하였다. 또한,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등을 바탕으로 궁중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정치적 사건들을 종합하여 장렬왕후가 앓았던 경련에 대해 고찰하였다.

II. 본론

1. 장렬왕후의 생애

장렬왕후 조씨(1624~1688)는 한원부원군 조창원과 완산부부인 최씨의 1남 3녀 중 막내딸로 인조 2년(1624) 직산 관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양주 조씨 조창원은 인천부 사였으며 순량리(循良吏)로 명성이 자자하여 군자정으로

발탁되어 계수되기도 하였다. 딸 조씨가 국모로 간택되자 한원부원군에 봉해졌다. 어머니는 대사간 최철견의 딸 완산 부부인 전주 최씨였다. 인조 16년(1638) 15세의 나이에 제 16대 왕 인조(1595~1649)의 계비로 책봉되었다.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므로, 인조는 첫 왕후인 인열왕후 한씨가 사망한지 3년 뒤 새 중전을 맞이하였다.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두 왕자를 볼모로 청나라에 보낸 지 1년 만이며, 당시 인조의 나이는 44세였다.

장렬왕후가 입궁할 당시 인조의 곁에는 총애하는 후궁 귀인 조씨가 있었다. 또한, 원비에게서 4명의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계비에게서 아들을 또 얻기를 바라지 않았다. 장렬왕후는 어린 나이에 인조를 만나 왕비가 되었으나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자식을 낳지 못해 결과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질 수 없었다. 인조 27년(1649) 인조가 승하하자 효종이 보위를 이었고 장렬왕후는 자의대비가 되었으며 귀인 조씨는 폐서인이 된 후 사사되었다. 효종 10년(1659) 효종이 승하하자 현종이 보위를 이었고 장렬왕후는 대왕대비가 되었다.

효종의 사망 이후 장렬왕후의 복상 문제가 정치적으로 확대되었고 1차 예송 논쟁이 시작되었다. 서인이 만 1년 작복하는 기년 설을 주장하였고 그 절차대로 복상을 치렀다. 하지만, 이듬해 남인 허목 등이 대왕대비의 복상은 3년으로 해야 한다는 3년 설을 제기하면서 서인을 공격했다. 서인의 거두 송시열은 기년 설을 다시 주장했고, 남인 윤희 등은 효종이 만아들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하며 3년 설을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양당 간의 쟁점으로 떠올랐고, 송시열 등의 주장에 따라 기년 설이 채택됨으로써 남인의 입지가 약해지고 서인의 입김이 강해졌다.

1674년(현종 15년)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 장씨의 사망으로 복상 문제가 다시 대두되어 2차 예송 논쟁이 발생하였다. 이 때 남인은 기년 설을, 서인은 대공 설(9개월 설)을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기년설이 채택되어 서인 정권이 몰락하고 남인이 정권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 국상이 날 때마다 장렬왕후의 상복 문제로 조정이 시끄러웠던 셈이다.

장렬왕후 조씨는 숙종 14년(1688) 6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능호는 휘릉이며 능은 단릉으로 조성되었다. 장

10) 김동율, 김태우, 차용석. 「경종의 병력에 대한 연구 I, 『승정원일기』 약방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11-22.
 11) 김동율, 정지훈. 「경종 독살설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1):15-31.
 12) 고대원, 김동율, 김태우, 차용석. 「숙종의 두창에 관한 『승정원일기』의 의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43-51.
 13) 고대원. 「조선 숙종의 치병에 관한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5.
 14) 방성혜, 차용석.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12;18(1):1-11.
 15) 방성혜, 김남일, 안상우, 차용석.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장희빈 의안 관련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2):53-62.
 16) 김동율. 「장희빈의 죽음이 경종의 건강에 미친 영향 : 『승정원일기』 의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17) 곽영룡. 「혜경궁 홍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학적 연구 : 『승정원일기』 내 용약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
 18) 김인숙.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별궁 유폐고.」. 한국인물사연구. 2006;5:129-158.

렬왕후에게는 친자식이 없었으므로, 원비인 인열왕후 한씨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고, 이어 손자, 증손, 고손에 이르기까지 인열왕후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에 오르게 된다.

2. 장렬왕후가 앓았던 경련의 증상에 대한 기록

장렬왕후의 경련에 관한 증상은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1645년) 8월 12일 기사¹⁹⁾에 처음 언급된다. 인조는 ‘중진이 지난해부터 병을 앓고 있으니 약을 의논하여 보고하라’ 명하였으나, 그 증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의관들도 ‘증세가 재발하였다. 증세가 발작하였다가 기가 가라앉아 진정되었다.’라고 표현할 뿐이다.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전에 앓던 증상이 재발하였다’라고 반복된다. 장렬왕후가 앓았던 증상의 기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장렬왕후가 앓았던 경련의 증상에 대한 기록

| 날짜 | 경련의 증상에 대한 기록 |
|----------------------------------|--|
| 인조 24년 10월 12일 기사 ²⁰⁾ | “전에 앓던 증상이 今日 寅時에서 재발하여 辰時에 멈추었다.” |
| 인조 24년 11월 23일 기사 ²¹⁾ | “三更三點 증후가 다시 재발하여三更五點에 기후가 평복하여 평상시와 같아졌다.” |
| 인조 25년 4월 10일 기사 ²²⁾ | “지난밤 三點에 전에 앓던 증상이 재발하여 二更一點에서 기가 내려가 진정되어 지금은 평상시와 같아졌다.” |
| 인조 25년 6월 17일 기사 ²³⁾ | “夜人定後에 전에 앓던 증상이 재발하여 二更에서 기가 내려가 진정되어 지금은 평상시와 같아졌다.” |
| 인조 25년 7월 21일 기사 ²⁴⁾ | “今日 辰時 末에 전에 앓던 증상이 재발하여 巳時 初에 기가 내려가 진정되어 지금은 평상시와 같아졌다.” |
| 인조 25년 8월 5일 기사 ²⁵⁾ | “어제 밤 初更四點에 증상이 재발하여 二更一點에 기가 내려가 진정되었다.” |
| 인조 25년 9월 24일 기사 ²⁶⁾ | “卯時에 증세가 재발하여 辰時 初에 기가 내려가 진정되었다.” |
| 인조 25년 11월 12일 기사 ²⁷⁾ | “밤에 증세가 재발하여 初更五點에 기가 내려가 정신이 안정되고 寢睡가 평상시와 같아졌다.” |
| 인조 26년 5월 1일 기사 ²⁸⁾ | “지난밤 三更一點에 증세가 발작하여 三更三點에 기가 내려가 寢睡는 전과 같다.” |
| 인조 26년 7월 25일 기사 ²⁹⁾ | “今日 酉時 初에 전에 앓던 증상이 재발하여 酉時 末에 기가 내려가 평상시와 같아졌다.” |
| 인조 26년 7월 26일 기사 ³⁰⁾ | “지난 밤 三更一點에 기가 올라가 二點에 기가 내려가고 三點에 진정되어 평상시와 같아졌다.” |
| 인조 26년 7월 28일 기사 ³¹⁾ | “前日 기가 막힌 증후가 나타나고 두 손이 이완되었다.” |
| 인조 26년 9월 24일 기사 ³²⁾ | “지난 밤 四更二點에 증상이 재발하여 三更初에 기가 가라앉아 평상시와 같아졌다.” |
| 인조 27년 4월 12일 기사 ³³⁾ | “지난밤 四更三點에 증세가 재발하여 四更四點에 기가 내려가 진정되어 평상시와 같아졌다.” |

- 19) 『承政院日記』 인조 23년 8월 12일. 傳曰, 內殿, 自上年有病, 至今未瘳, 退與諸醫, 議藥以啓, 而症候問于醫女.
- 20) 『承政院日記』 인조 24년 10월 12일. 提調禮曹判書臣鄭太和, 副提調都承旨臣金光煜啓曰, 臣等當日午後, 伏聞巳時末, 中殿差備招醫女愛福, 傳言中殿所患前症, 今日寅時復發, 辰時而止.
- 21) 『承政院日記』 인조 24년 11월 23일. 都提調還進藥房, 提調鄭, 左副承旨臣李元鎮啓曰, 當日午時, 臣等伏聞中殿差備招醫女丹春傳言, 中殿所患前症, 去夜復發, 臣等馳進慶德宮問安. 仍令醫女, 更探今番症候, 則內人言內, 三更三點, 症候復發, 三更五點, 氣候平復如常之後, 朝水刺亦如常時云.
- 22) 『承政院日記』 인조 25년 4월 10일. 藥房都提調金自點, 副提調韓必遠啓曰, 今日卯時, 中宮殿內人, 傳言急招醫女等, 臣即詣慶德宮問安, 令醫女愛福·連生·天生·正玉等, 入候, 則愛福等傳言內, 中殿, 去夜初更三點, 前症復發, 二更一點, 氣降始定, 今則如常.
- 23) 『承政院日記』 인조 25년 6월 17일. 藥房都提調金自點, 提調趙綱, 左承旨陸性善啓曰, 今日辰時, 臣金自點在推鞠廳, 因慶德宮入直醫官所傳, 始聞中殿未寧. 臣等即詣慶德宮問安後, 令醫女正玉·連生等入候, 則正玉連日傳言, 中殿去夜人定後, 前證復發, 至二更, 氣降鎮定, 今則氣候如前云, 仍令醫女等察色診候, 依其所言, 別單, 書啓矣.
- 24) 『承政院日記』 인조 25년 7월 21일. 藥房都提調金自點, 右副承旨柳景綰啓曰, 今日午間分藥房醫官, 傳內人之言, 今日辰時末, 中殿前症復發, 已初氣降鎮定, 氣候如常云.
- 25) 『承政院日記』 인조 25년 8월 5일. 中殿問安後, 藥房啓曰, 今日辰時分, 藥房入直醫官, 傳內人之言, 昨夜初更四點, 中殿前症復發, 二更一點, 氣降鎮定後, 龍腦安神丸進御, 則如常云.
- 26) 『承政院日記』 인조 25년 9월 24일. 藥房啓曰, 今日巳時分, 藥房入直醫官, 傳內人之言曰, 中殿當日卯時, 前症復發, 辰初氣降鎮定.
- 27) 『承政院日記』 인조 25년 11월 12일. 藥房啓曰, 今日分藥房入直醫官, 傳內人言內, 去夜人定後, 中殿前症復發, 進龍腦安神丸, 至初更五點氣降, 精神安定, 寢睡如常云.
- 28) 『承政院日記』 인조 26년 5월 1일. 藥房三提調啓曰, 今朝問安後, 臣等方在闕下, 而慶德宮入直醫官, 傳報自內招醫女等, 臣等進詣慶德宮問安, 則醫女傳內人言曰, 去夜三更一點, 中殿前症復發氣上, 三更三點氣降如常, 寢睡亦復如前, 而朝水刺, 時未及進御云.
- 29) 『承政院日記』 인조 26년 7월 25일. 藥房都提調金自點, 提調趙綱, 左承旨尹得說啓曰, 慶德宮入直醫官所報, 自內招醫女等, 臣等詣慶德宮問安, 令醫女等入診, 則醫女等, 傳內人之言曰, 今日卯初, 中殿前症復發, 未及卯末, 氣降如常, 朝水刺, 亦如前進御云.
- 30) 『承政院日記』 인조 26년 7월 26일. 藥房都提調金自點, 提調趙綱, 副提調金南重啓曰, 今日卯時, 慶德宮入直醫官, 通報內人, 急招醫女等, 臣等馳詣慶德宮, 則醫女等, 傳內人之言曰, 中殿前症復發, 昨夜三更一點氣上, 二點氣降, 三點鎮定如常云.
- 31) 『承政院日記』 인조 26년 7월 28일. 藥房又啓曰, 慶德宮入直醫官, 傳報內人招醫女等, 臣等即馳詣慶德宮, 則醫女傳內人之言曰, 昨日中殿梳洗後, 氣不平和似有否隔之候, 兩手亦以弛緩, 而不爲跛倚, 坐而鎮定, 即進龍腦安神丸, 仍爲如常, 至二更四更, 及罷漏後, 亦如是而止.
- 32) 『承政院日記』 인조 26년 9월 24일. 藥房都提調金自點, 提調韓興一, 左副承旨沈之源啓曰, 慶德宮入直醫官, 傳報內人招醫女等云, 臣等進詣慶德宮, 則醫女傳內人之言曰, 去夜四更二點, 中殿前症復發, 至三更初氣降, 即進龍腦安神丸, 而氣候如常, 仍爲寢睡, 罷漏後, 又氣上如前刻數, 氣降之後, 復進龍腦安神丸, 氣候如常云, 臣等不勝驚憂悶慮之至.
- 33) 『承政院日記』 인조 27년 4월 12일. 藥房啓曰, 慶德宮入直醫官傳報, 內人招醫女等, 臣進詣慶德宮問安後, 令醫女天生·正玉·古公等, 入診察色, 則醫女傳內人之言曰, 去夜四更三點, 中殿前症復發, 四更四點, 氣降鎮定後, 氣候如常, 而今番, 則比前頗輕云.

인조 27년(1649) 5월 8일 기사³⁴⁾에 따르면 유시 초(酉時 初) 인조가 승하한다. 장렬왕후는 경덕궁에 있다가 세자의 명을 통해 중궁전에 입궁한다. 특기할 점으로는 인조가 승하한 이후 『승정원일기』에는 ‘증세가 재발하여 기가 내려가고 평상시와 같아졌다’라는 식의 언급은 따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장렬왕후가 복용하였던 경련의 처방에 대한 기록

장렬왕후는 인조 23년 8월부터 인조 27년 4월까지 청심온담탕(淸心溫膽湯), 용뇌안신환(龍腦安神丸), 자하거환(紫河車丸), 회춘이진탕(回春二陣湯), 가미영신환(加味寧神丸), 양혈안신탕(養血安神湯)을 복용하였다. 청심온담탕과 용뇌안신환은 『동의보감·신문』 전간에 나온다. “간질(癇疾)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지면서 이를 악물고 소리를 지르며, 거품 같은 침을 토하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가도 조금 있으면 깨어난다. 여윈 사람은 화가 성하므로 청심곤담환(淸心滾痰丸), 용뇌안신환을 쓰고, 심장이 허손되고 기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음영신탕(滋陰寧神湯), 청심온담탕, 귀신단(歸神丹)을 쓴다고 하였다³⁵⁾.”

자하거환은 『의학입문·간문』에 언급된다. “신간(腎癇)은 얼굴색이 검고 똑바로 앞만 보며 돼지가 우는 것 같이 소리 낸다³⁶⁾.”라고 하며, 지황환(地黃丸), 자하거환을 쓴다. 회춘이진탕은 『만병회춘』에 나오는 가미이진탕으로 추정되는데, “가미이진탕은 담결(痰厥)을 치료한다³⁷⁾”고 하였다. 『동의보감·담음문』 담결에는 “속이 허한 상태에서 찬 기운을 받아 담기(痰氣)가 막혀서 생긴 것으로 손발이 싸늘하고 마

비되며, 어지러워 넘어지고 맥이 침세하며, 가미이진탕, 청화화담탕(淸火化痰湯), 학정단(鶴頂丹)을 쓴다고 하였다. 소아에게는 탈명산(奪命散)을 처방하여 쓰는 것도 좋다³⁸⁾”고 하였다.

가미영신환은 『동의보감·신문』 신병통치약이에 나오며, 심혈의 부족으로 인한 경계, 정충, 건망증, 황홀 등 일체의 담화(痰火)로 인한 증상을 치료한다³⁹⁾고 하였다. 『동의보감·신문』 신병용약결에서 “광(狂)은 담화가 몹시 치성해서 생기고, 전(癲)은 심혈이 부족해서 생기며, 간(癇)은 주로 담이 화로 인해 동해서 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癇)은 토하게 하는 것이 좋고, 광(狂)은 설사시키는 것이 좋으며, 전(癲)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혈을 보양하는 동시에 담화를 내려주어야 한다⁴⁰⁾”고 하였으므로, 가미영신환은 전광과 간증에 두루 사용하는 처방임을 알 수 있다.

양혈안신탕은 『동의보감·신문』 경계⁴¹⁾에 나오는데, 혈허로 인한 경계를 치료하고 혈을 보충하고 정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동의보감·신문』 경계를 보면 『내경』에는 “혈이 음사(陰邪)와 섞이고 기가 양사(陽邪)와 섞이면 경광(驚狂)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내경』의 왕빙주에는 “계(悸)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본초강목』에는 “경(驚)이란 심이 갑자기 놀라서 안정되지 않는 것”이고 “계(悸)란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워 놀라는 것이다⁴²⁾.”라고 하였다.

장렬왕후가 겪었던 증상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혈허와 담화로 인한 경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관들은 간질로 여겨 청심온담탕, 용뇌안신환, 자하거환, 회춘이진탕, 가미영신환, 양혈안신탕을 고루 처방하고, 위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탕제 1종류와 환제 1~2종류를 합방하여 처방하였다. 이를 한 눈에 살펴보기 위해 표 2로 정리하였다.

34) 『承政院日記』 인조 27년 5월 8일. 上熱候大發, 世子下令曰, 中宮殿請移御事, 大臣處, 中路奉迎入闕後, 酉初昇遐.

35) 『東醫寶鑑·神門』 癲癇 癲者 異常也 平日能言 癇則沈默, 平日不言 癲則呻吟 甚則僵仆直視 心常不樂 言語無倫 如醉如痴. 癇者 卒然暈倒 咬牙作聲 吐涎沫 不省人事 隨後醒. ... 瘦人火盛 宜淸心滾痰丸, 龍腦安神丸 心臟虛損 氣血不足 宜滋陰寧神湯 淸心溫膽湯 歸神丹. 婦人 宜加味逍遙散 方見 婦人 朱砂膏見上 ... 五癇通治 宜龍腦安神丸 五癇丸 六珍丹 錢氏五色丸 育魂丹 丑寶丸 鷓鴣頭丸 活虎丹 蝙蝠散 礬丹丸. 癇愈復發 宜斷癇丹(諸方).

36) 『醫學入門』 癇門 腎癇, 面黑直視, 如尸猪叫.

37) 『萬病回春』 卷之二 中風 類中風證 治痰厥半夏製陳皮白茯苓當歸枳實桔梗杏仁各一錢良薑縮砂各五分木香桂皮甘草各三分右左作一貼薑五片水煎服

38) 『東醫寶鑑·痰飲門』 痰厥 痰厥者 皆因內虛受寒 痰氣沮塞 手足厥冷 麻痺 暈倒 脈沈細. 宜服加味二陳湯 淸火化痰湯 鶴頂丹 小兒方奪命散 亦可(入門).

39) 『東醫寶鑑·神門』 神病通治藥餌 加味寧神丸 治心血不足 怔忡 驚悸 健忘 恍惚 一切痰火之證. 生乾地黄 60 g 當歸 芍藥 白茯苓 麥門冬 陳皮 貝母炒 各 40 g 遠志薑製 川芎 各 28 g 酸棗仁炒 黃連 甘草 各 20 g 爲末 蜜丸 綠豆大 朱砂爲衣 粟湯下 5~70丸(集略).

40) 『東醫寶鑑·神門』 神病用藥訣 狂爲痰火 實盛, 癲爲 心血不足 多爲求望高遠 不得志者 有之. 癇病 獨主乎痰 因火動之所作也 治法 癇宜乎吐, 狂宜乎下 癲則宜乎 安神養血 兼降痰火(正傳).

41) 『東醫寶鑑·神門』 驚悸 當補血安神, 宜靜神丹 寧志元 養血安神湯 朱砂膏 交感丹 加味四七湯(諸方).

42) 『東醫寶鑑·神門』 驚悸 <內經>(調經論篇 第六十二)曰 血并於陰 氣并於陽 故爲 驚狂 <內經註>曰 悸者 心跳動也. <綱目>曰 驚者 心卒動而不寧 悸者 心跳動而怕驚也.

표 2. 장렬왕후가 복용하였던 경련의 처방에 관한 기록

| 날짜 | 처방내용 | 언급된 증세 |
|------------------------|-------------------------|------------|
| 인조 23년 (1645) 8월 | 清心溫膽湯 | 지난해부터 앓던 병 |
| 인조 23년 (1645) 9월 | 清心溫膽湯 龍腦安神丸 | |
| 인조 24년 (1646) 1월 | 紫河車丸 | |
| 인조 24년 (1646) 8월 | 回春二陣湯 | 痰厥 |
| 인조 24년 (1646) 10월, 11월 | 龍腦安神丸 及 回春二陣湯 | 증세 재발 |
| 인조 24년 (1646) 12월 | 回春二陣湯 | 증세 재발 |
| 인조 25년 (1647) 3월, 4월 | 回春二陣湯 | 증세 재발 |
| 인조 25년 (1647) 8월 | 龍腦安神丸 | 증세 재발 |
| 인조 25년 (1647) 9월 | 回春二陣湯 及 加味寧神丸 | 증세 재발 |
| 인조 25년 (1647) 11월 | 龍腦安神丸 回春二陣湯 及 加味寧神丸 | 증세 재발 |
| 인조 26년 (1648) 5월 | 回春二陣湯 龍腦安神丸 加味寧神丸 | 증세 재발 |
| 인조 26년 (1648) 7월 | 回春二陣湯 紫河車丸 龍腦安神丸 | 증세 재발 |
| 인조 26년 (1648) 9월, 11월 | 養血安神湯 | 증세 재발 |
| 인조 27년 (1649) 4월 | 養血安神湯 龍腦安神丸 | 증세 재발 |

4. 장렬왕후의 행적과 역사적 사건에 관한 기록

1) 난임(難妊)

중전이 된 어린 왕비는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 한편 소용 조씨는 종4품 숙원 책봉으로 시작하여 종1품 귀인의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출산을 하지 못한 왕비 조씨를 무시하였다. 왕비 스스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석녀라는 사실에 콤플렉스를 느껴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또한, 성품이 온화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고통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承政院日記』 숙종 14년 12월 16일(乙卯) 2번째 기사에 나오는 장렬 왕후의 지문 일부이다.

후는 매양 겸손하고 삼가는 것으로써 본가(本家)를 계척(戒飭)하여 「예로부터 궁위(宮闈)가 엄정(嚴正)하지 못한 것은 대개 척완(戚腕)이 근신하지 않은 데서 말미암았으니, 경계(驚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부부인이 때때로 후시 췌내에 들어와 궁(宮)안의 일을 조금이라도 청하면 후가 이르기를, 「어머니께서 나에게 비록 지친(至親)이

되지만 국가(國家)에서는 외인(外人)이니, 내전의 일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2) 별궁 유폐 사건

소용 조씨는 중전이 사택에 있을 때부터 증풍을 앓아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인조실록』 인조 23년 10월 9일 기사를 보면, 인조가 중전을 별궁인 경덕궁으로 거처를 옮길 날짜를 해조로 하여금 택하도록 명을 한다. 이공익의 『연려실기술』 ‘강빈의 옥사’를 보면 「을유년(인조 23년) 12월 왕후 조씨가 병환이 있어 별궁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⁴³⁾. 승지 이래(李稜)와 정치화(鄭致和)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신들과 의논하기를 청하지만 인조는 불쾌해 하였다. 「내전이 풍을 앓아온 데다가 후궁 조씨의 이간질로 판 방에 별거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았으나 궁중의 비밀스런 일 이어서 알고 있는 자가 없었는데, 사사로이 내관을 보내어 경덕궁 단명전(端明殿)을 수리하면서 승정원에는 숨겨 그때 벌써 인조가 중전을 다른 궁으로 내보낼 뜻이 있음을 알았다⁴⁴⁾」고 한다.

『인조실록』 인조 23년 10월 18일 기사에는, 조정의 대신

43) 『燃藜室記述』 제 27권. 인조조고사본말 강빈옥사. 실제 왕비가 별궁으로 옮긴 것은 12월이 아닌 11월이다.

들이 증진을 별궁으로 옮기라는 명을 중지하도록 여러 날 계를 올리자 인조가 분노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 증세가 불결하고 또 전염병이기 때문에 옮기라는 것인데 주상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작은 것을 문제 삼아 반대하니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증진의 병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앓던 것으로 작년에 재발하여 최근에 더욱 심해진 것이다. 그런데 의관과 의녀가 (약방) 제조에게 분명히 말해주지 않았으니 의관 최득룡과 의녀 연생을 모두 잡아다가 추고하라.」고 한다.

이러한 전교가 내려지자 모두가 당혹스러워했다. 「의관 최득룡은 수관에게, 8월 12일 증진의 약 처방을 의논하라는 하교가 있어 바로 의관들과 의논하고 의녀로 하여금 진맥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제조에게 말해주어 여러 의원과 상의한 결과 병명은 풍간(風癲)이었고 이 병에 상응하는 약 처방과 치료를 했다고 하였다. 의녀 연생도 갑작스럽게 병이 발작하는 증상을 제조와 의관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하였다. 금부에게는 형문을 하여 사실을 밝히도록 청하지만 인조는 오히려 풀어주라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인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이들의 죄를 다스리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병의 증상을 밖에 분명히 알리려는 데에 그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며, 또 연생 등이 한 말도 다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였다⁴⁵⁾」

이런 일이 발생한지 3개월 만에 장렬왕후는 인조의 명에 의해 경덕궁으로 이접을 가게 된다. 경덕궁은 지금의 경희궁이며, 조선 후기의 경덕궁은 법궁인 동궐이 화재나 수리 등의 이유로 사용이 곤란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거처하는 이궁으로 사용되었다⁴⁶⁾.

3) 소현세자의 사망 및 세자빈 강씨의 사사 사건

인조 23년(1645) 2월 18일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심양

에 볼모로 갔었던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귀국하였고, 위협을 느낀 소용 조씨는 인조와 소현세자 사이를 이간질하였다. 소현세자는 인조 23년 4월 23일 학질(瘧疾)이 발병한지 3일 만인 4월 26일 사망하였다. 『인조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세자는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얼굴의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먹목(幘目 : 소름 때 시체의 얼굴을 싸는 검은 형겔)으로 얼굴 반쪽만 덮어 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돼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인조는 통치기간 내내 빈번하게 발생한 모반사건으로 왕권을 도전받았다. 소현세자의 장자인 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봉림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한 인조는 왕세자로서 봉림대군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사후에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을 미연에 제거하고자 했을 것이다⁴⁷⁾.

소현세자가 죽은 지 1년 후 인조가 먹으려 했던 전복구이에서 독이 발견되었고, 인조는 세자빈 강씨가 본인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비방기를 내린다. 영희정 김류와 대신들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조는 세자빈 강씨의 궁녀들을 고문하도록 하였다. 대신들과 삼사의 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수많은 대신들이 반대하였지만, 궁녀들이 고문 속에 죽어 갔다. 강빈의 오라버니인 강문성과 강문명도 체포되어 곤장을 맞다가 죽었다. 강빈의 옥사를 반대하는 대신들은 파직되거나 유배를 갔다. 인조 24년(1646) 3월 소현세자빈 강씨는 폐출되어 사사되었다.

4) 어의 추고 사건

『승정원일기』 효종 원년 10월 25일⁴⁸⁾ 장렬왕후의 예전 증상에 대해 거짓 처방을 했던 여의(女醫)와 정계립 등을

44) 『仁祖實錄』 인조 23년 10월 9일. 上下敎曰: “內殿以今月望後, 當移寓慶德宮, 令該曹擇日舉行.” 承旨李稷, 鄭致和等乃啓曰: “內殿移御別宮, 事甚重大, 而今此下敎, 出於慮外, 凡在瞻聆, 必致疑惑. 宜下問于大臣, 明白議定.” 上不悅. 翌日乃下敎曰: “彼此皆是宮禁, 避接何妨?” 先是, 外間傳言, 內殿素患風疾, 且爲趙昭容所問, 別處一室, 而宮中事秘, 莫有知者. 是年八月, 上招御醫崔得龍等敎曰: “內殿自上年得疾, 久而未瘳, 議藥以啓.” 於是, 藥房都提調金瑩, 提調金培等請令醫女連生等入診證候, 然後議其鍼藥, 許之.

45) 『仁祖實錄』 인조 23년 10월 18일. 兩司以內殿移御事, 合啓累日, 上每以不允答之而已. 至是, 上怒其連啓不已, 乃答曰: “厥證不潔, 且是傳染之病, 今此移寓, 非特爲彼病患, 而爾等不念上躬, 不顧禮文, 假托小弊, 瀆擾不已, 是誠何心哉? 予實未曉其意也.” 又下敎曰: “中宮病患, 非一朝猝發, 而乃兒時所遭也. 自上年復發, 近日益甚, 而醫官, 醫女等, 不爲明言于提調, 致令外官, 佯若不知, 其心所在, 極爲奸詐. 醫官崔得龍, 醫女連生並拿推.” 此敎一下, 無不相顧錯愕. 得龍對獄曰: “八月十二日, 有內殿議藥之敎, 卽招諸醫, 會于藥房, 使連生, 勝昭入診證候. 連生等俱言于提調, 臣與諸醫相議, 則病名乃風癲也. 遂定用清心溫膽湯, 龍脛安神丸等藥, 又議大頤, 問使, 百會, 中脘, 三里, 絕骨, 氣海等灸穴, 此皆治癲之方也. 臣等豈有不爲明言之事乎?” 連生之對, 亦如得龍, 而至云: “以艾灸事, 逐日入侍, 不意疾作之狀, 亦嘗明言于提調及諸醫.” 云. 禁府以其事入啓, 並請刑推得情, 上命皆釋之. 蓋上意, 不在於治罪, 特欲因此, 以證其病狀, 使中外明知之也. 然外間猶稱連生之言, 未可盡信也.

46) 장정미. 『영조의 경덕궁 이어와 왕실 의례의 공간적 의미』.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47) 김인숙.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별궁 유배고』. 한국인물사연구. 2006;5(1):129-158.

48) 『承政院日記』 인조 23년 10월 18일. 禍國賊心之發源處, 已在於先王大漸之際, 終不爲慈殿告急. 不告之心, 此非無君不道而何? 慈殿前症之一說, 以

먼저 엄국하고 왕래했던 역관배를 속히 추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효종실록』 효종 즉위년 9월 1일 기사를 보면 「자전께서 다른 궁에서 별도로 거처하신 후 전의 증세가 다시 일어났다는 설이 매양 조보(朝報)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어하신 이래 이제 네 달이 되었으나 한 번 감기가 드신 것 외에는 전의 증세가 재발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하가 되어 감히 이런 말을 질병이 없는 국모에게 가하고 약방을 왕래하면서 함부로 무함했으니 대역무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⁴⁹⁾」라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장렬왕후가 인조 대에 풍간을 앓았다는 기록은 거짓으로 꾸며진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

표 3. 인조와 효종 대 장렬왕후의 행적과 역사적 사건에 관한 기록

| 날짜 | 역사적 사건 |
|-------------------|--------------------|
| 인조 23년 (1645) 4월 | 소현세자 사망 |
| 인조 23년 (1645) 11월 | 장렬왕후 경덕궁 이집 |
| 인조 24년 (1646) 3월 | 세자빈 강씨 사사 사건 |
| 효종 원년 (1650) 10월 | 거짓 처방을 내린 어의 추고 사건 |

5. 장렬왕후가 앓았던 경련에 대한 고찰

전간(癲癇)에 대한 기록은 동양의학 최고(最古)의 문헌인 『황제내경』(BC 8~3세기경)에서 시작되며 전(癲)과 간(癇)을 구분하고 있다. 간(癇)의 원인은 “癇者 乃水氣乘心”하여 온다고 하였으며 전(癲)은 태병(胎病)으로서 “此得之在母腹中時 其母有所大驚하여 氣上而不下 精氣並居 故今子發爲癲疾也⁵⁰⁾”라고 하였다. 장렬왕후의 병명이었던 풍간(風癇)은 이 癇(간) 중의 한 가지 종류로 추정해볼 수 있으나, 인조 대에만 나타나고 그 이후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인조 23년 8월 12일⁵¹⁾ 약방제조 김욱(金楡), 부제조 김광욱(金光煜)이 증전께서 지난해부터 편찮으시다는 소리를 듣고 놀랍고 염려가 된다며 의녀로 하여금 진맥하고 병세를 살피게 한 후 청심온담탕 가 우담, 천남성초를 처방하였다. 가을에 쌀쌀해지면 침과 뜸을 곁하자고 하였다.

장렬왕후는 인조 23년 8월 22일~28일 그리고 9월 2일~25

일의 기간 동안 20번의 뜸 치료를 받았으며 청심온담탕을 50첩 복용하였고, 추운 겨울이 되자 쓴 약을 계속 복용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용뇌안신환을 이어서 복용하였다. 용뇌안신환은 5가지 전간을 치료하는데 처음 발작할 때에 몸에 열이 있고 경련이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르는 양간(陽癇)일 경우 용뇌안신환과 청심근담환을 쓰는 것이 좋다.

인조 23년 10월 인조는 증전의 거처를 별궁인 경덕궁으로 옮기도록 한다. 갑작스러운 왕의 조치에 대해 승지가 뜻밖의 하교에 모두가 의혹을 갖게 될 것이라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신들과 의논하기를 청하지만, 인조는 장렬왕후의 병이 불결하고 전염의 위험이 있다면서 증전의 거처를 옮기도록 하였으며 세자에게도 문안을 금지하였다. 세간에는 증전이 증풍을 앓았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도 증전이 앓았던 병이 증풍인지 간질인지 의견이 분분하나, 『승정원일기』에 나온 청심온담탕과 용뇌안신환만을 보았을 때는 증풍보다는 간질이 더 가까운 듯하다.

그렇다면, 11월 2일 별궁으로 이어한 이후에도 간질에 관한 처방을 계속 복용하였는가? 7월 27일 더위가 심해져 자 두통, 현기증, 토할 것 같은 증세가 재발하여 담궐로 보고 회춘이진탕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다. 8월 23일 증세가 나아져 문안하지 말라고 명한다. 그러나, 10월 11일 병의 뿌리가 깊으니 약을 다시 복용해야 한다고 하여 회춘이진탕 급 용뇌안신환을 올렸다. 10월 12일 전에 앓던 증상이 오늘 인사에서 재발하여 진시에 멈춘, 11월 23일 삼경삼점(자정)에 증후가 재발하여 삼경오점(새벽 1시)에 기후가 안정되어 지속적으로 회춘이진탕을 복용하였다. 그 다음해 4월 10일 저녁 초경삼점(오후 8시)에 전에 앓던 증후가 재발하여 이경일점(오후 9시)에 기가 내려가 평상시와 같아졌다고 하였다. 6월 17일, 7월 21일, 8월 5일에도 각각 증후가 재발하였으나, 여름철이라 고(苦)한 탕약은 사용할 수 없으니 용뇌안신환을 복용하고 더위가 물러가면 탕약을 복용하기로 하였다. 9월이 되자 원기가 허약해지고 맥이 열상을 띄고 얼굴에 부종이 있었다. 회춘이진탕 급 가미영신환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어서 복용하고, 그 다음해인 인조 25년, 26년, 27년에도 발작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복용하였다.

賊醫可欺之方, 觀聖人三去之法, 則慈殿之不幸, 幾至於不忍言, 而先大王則道出前聖, 盡善盡美, 以中殿之禮, 終始待中殿. 又以政院·騎省·藥房·摠府, 成一小朝廷, 俾盡保護靜攝之方. 苟非盛德至意, 其何能若是? 其時領相大臣, 兼帶藥房都提調之任, 則以賊醫欺君陷母之罪, 舉而啓鞠, 可也.

49)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9월 1일. 慈殿別處異宮之後, 前症復發之說, 每出於朝報, 而還御以來, 今已四朔. 一番感冒之外, 復未聞前症之說, 爲人臣子, 而敢以此, 橫加於無疾之國母, 往來藥房, 期於誣陷, 非大逆不道而何?

50) 이일량, 김영만. 「전간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980;1(1):63-73.

51) 『仁祖實錄』 인조 23년 8월 12일. 提調禮曹判書臣金楡, 副提調行都承旨臣金光煜啓曰, 卽者伏見下醫官之教, 始審中殿, 自上年有未寧之候, 不勝驚慮, 問于醫女, 則醫女等近來罕入內殿, 不能詳審云, 卽令醫女, 先爲入診, 詳察症候, 然後議藥, 何如?

『승정원일기』에는 장렬왕후가 인조 22년부터 인조 27년까지 즉 21세부터 26세까지 간질을 앓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풍간은 현대의학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뇌전증과 유사하며, 이 뇌전증은 발작이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화된 질환이다. 인조 24년 11월 23일 삼경삼점(자정)에 재발하여 삼경오점(새벽 1시)에 기가 평상시대로 돌아왔다는 기사, 인조 25년 4월 10일 초경삼점(오후 8시)에 재발하여 이경일점(오후 9시)에 기가 평상시대로 돌아왔다는 기사, 인조 26년 5월 1일 삼경일점(오후 11시)에 재발하여 삼경삼점(자정)에 기가 평상시대로 돌아왔다는 기사 등으로 보았을 때 발작 시간이 1시간 정도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보통의 간질 환자들은 경련의 지속 시간은 1~2분 정도이다. 『승정원일기』의 기록만을 보았을 때 정신을 잃고, 발작하고, 호흡이 곤란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전신강직간대발작(대발작)으로 보이며, 경련 시간이 5분을 넘기면 간질 중첩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장렬왕후가 앓았던 경련의 경우 1시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간질 중첩 상태로 보인다. 간질 중첩 상태가 진행되면 뇌 손상이나 뇌 세포 손상이 나타나므로 심할 경우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회복한다 하더라도 뇌 기능 장애가 남아 후유증이 심하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간질로 발전할 수 있다.

장렬왕후의 경우 인조가 승하한 이후에는 경련의 증상이나 치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달에 1~2회 이상의 대발작이 1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는 전혀 경련이 나타나지 않고 오래 살았다는 점, 뇌손상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을 근거로 장렬왕후가 뇌전증을 앓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무리가 가는 대목이다.

II. 결 론

의안을 연구하는 목적은 선인들의 식견을 한의학적 입상에 참고하고 검증하여 후세의 의가들이 활용하고 전통의학의 맥을 승계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⁵²⁾. 장렬왕후는 인조, 효종, 현종, 숙종 4대의 임금에 거쳐 궁중 최고의 어른인 대왕대비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다. 현종 대 1차, 2차 예

송논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숙종 대 남인과 회빈 장씨의 후견인이었다. 조씨는 재물에 관한 욕심이 없었고 조용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러나, 중전 시절 왕위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 기반을 다지지 못하였다.

본문에서는 장렬왕후가 인조 대 앓았던 경련에 대한 증상과 처방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고찰하였다. 『승정원일기』의 기록대로 “증상이 재발하였다가 기가 내려가 진정되었다.”,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이 안정되었다.”, “기가 막히고 두 손이 이완되었다”라는 점은 전신강직간대발작(대발작)과 유사하다. 경련 시간이 5분을 넘기면 간질 중첩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장렬왕후가 앓았던 경련의 경우 1시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간질 중첩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간질 중첩 상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뇌손상이나 다른 후유증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오히려 4대의 임금에 걸쳐 장수하였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장렬왕후가 입궁하였을 당시 인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후궁 귀인 조씨가 있었기 때문에 왕후는 후궁에게 기가 눌러 지냈다. 소현세자는 의문의 사망을 당하고 세자빈 강씨는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음모에 휘말려 사사되었다. 인조는 갑자기 중전의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하라는 명을 내리고, 중전은 풍간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별궁으로 유폐되었다. 하지만, 인조 사후에 장렬왕후가 앓았던 풍간에 대한 증상이나 처치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효종 대에 이르러 거짓 처방을 올린 여의와 의녀들이 처벌받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후궁 조씨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인조와 중전의 사이를 이간질시켰고, 인조는 이에 동조하여 중전을 정치적으로 배제시킬 목적으로 남들이 다가가기 꺼리는 풍간이라는 병을 일부러 꾸며낸 것이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장렬왕후의 왕비 시절 앓았던 경련의 증후와 처치에 대하여 한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역사적 배경과 연관지어 고찰한 첫 논문이다.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질병의 증상과 처방, 합병증 등은 허준의 『동의보감』, 이천의 『의학입문』, 공정현의 『만병회춘』 등 여러 의서에 의존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 인문학 등 타 학문과의 연관성을 통해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이 갖는 의학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조선시대 다른 왕과 왕후들의 처

52) 김남일. 「한국의학사에서의 의안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한국의사학회지. 2005;18(2):189-195.

방, 진단, 예후, 합병증 등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
료된다.

참고문헌

1.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영진, 김홍균, 김훈, 등. 『한의학통사』. 서울:대성의학사. 2006:1-573.
2. 강도현. 「『승정원일기』의 의안을 통해 살펴본 효종의 질병과 사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 고대원, 김동윤, 김태우, 차웅석. 「숙종의 두창에 관한 『승정원일기』의 의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43-51.
4. 고대원. 「조선 숙종의 치병에 관한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5. 광영룡. 「혜경궁 홍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학적 연구 : 『승정원일기』내 용약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6. 김남일. 「한국의학사에서의 의안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한국의사학회지. 2005;18(2):189-195.
7. 김동윤, 김태우, 차웅석. 「경종의 병력에 대한 연구 I, 『승정원일기』 약방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11-22.
8. 김동윤, 김남일, 차웅석. 「『승정원일기』의안을 통해 살펴본 경종의 기질에 대한 이해」. 한국의사학회지. 2013;26(1):41-53.
9. 김동윤. 「장희빈의 죽음이 경종의 건강에 미친 영향 : 『승정원일기』 의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0. 김동윤, 정지훈. 「경종 독살설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1):15-31.
11. 김선형, 김달래. 「정조의 사망원인에 대한 연구 :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9;30(4):142-161.
12. 김선형, 김달래. 「영조의 질병력과 사망원인 :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의사학. 2010;19(2):299-341.
13. 김인숙.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별궁 유희고」. 한국인물사연구. 2006;5:129-158.
14. 김혁규, 김남일, 강도현, 차웅석. 「조선 인조의 질병기록에 대한 고찰 : 『승정원일기』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23-41.
15. 김혁규. 「조선 인조의 치병기록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6. 방성혜, 차웅석.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12;18(1):1-11.
17. 방성혜, 김남일, 안상우, 차웅석.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장희빈 의안 관련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2):53-62.
18. 신명호. 「『승정원일기』를 통해본 소현세자의 질병과 사인」.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2010;100:109-137.
19. 이상원. 「조선 현종의 치병기록에 대한 의학적 연구 : 예송논쟁이 현종 질병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0. 이일량, 김영만. 「전간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980;1(1):63-73.
21. 장정미. 「영조의 경덕궁 이어와 왕실 의례의 공간적 의미」.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2. 공정현. 『만병회춘』. 중국:인민위생출판사. 1995.
23. 이시진. 『본초강목』. 중국:인민위생출판사. 2008.
24. 이천. 『의학입문』. 서울:남산당. 1991.
25. 허준. 『원본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2014.
26.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27.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28.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